

여전히 신실하십시오

고린도전서 7: 1-16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제 이름은 빈(Vinh)이고, 저는 이곳 윌링던 교회의 목사 중 한 명입니다. 고린도전서 7:1-16을 설교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본문을 펴 놓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날을 축하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오순절 예배로 축하하였고, 이제 "내부자 대화"라는 제목의 설교 시리즈인 고린도전서 5-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리즈의 이전 설교들 중에 빠지신 적이 있다면 돌아가서 들어보세요. 또한 함께 제공되는 팟캐스트 시리즈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동안의 모든 설교를 보완해 줍니다.

1871년, 펄 토바코(Pearl Tobacco)라는 회사는 누드를 마케팅 기법으로 사용한 최초의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다른 회사들도 곧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 안에는 "섹스는 팔린다!"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젊은 성인(20-29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도발적인 옷을 입은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65% 더 높았고, 성적 행동을 묘사할 가능성이 128%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과도하게 성애화되는 세상에서 크리스천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눈을 가리고 다녀야 하나요? 도망쳐 숨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친밀함에 신실하기
2. 헌신에 신실하기
3. 증거하는 일에 신실하기

두 주일 전에, 레이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6장 후반부의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둘 다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7장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썼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시리즈에서 다뤘 듯이, 현대 우리는 고린도인들의 문화를 공유하며, 그 해결책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첫 번째 요점으로 가겠습니다.

1. 친밀함에 신실하기 (1-5)

고린도 교인들은 몇 가지 이유로 바울에게 편지를 썼지만, 바울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 몇 가지 그의 염려를 먼저 다룹니다. 이제 그가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편지의 맥락을 간략하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 많은 무역, 많은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한때 고린도 시에서 그들의 숭배의 중심 대상은 사랑, 아름다움, 다산의 그리스 여신인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아마도 과장되었을 수도 있지만, 1000명의 신전 매춘부가 신전에서 일을 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시대에는, 아프로디테의 영향력이 약해졌고, 성적 부도덕이 심해졌습니다. 성적 부도덕은 다양한 형태를 취했습니다 - 남자가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것, 매춘부와 성관계, 동성애, pederasty (성인 남성과 사춘기 소년 사이의 성관계), 간음 (첩과 정부를 포함한).

이것이 고린도에서는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서서히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적 부도덕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인용 부호 안의 구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바울에게 던지는 질문이며, 저는 교회가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의 문화는 성적 부도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 순결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믿으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기혼이든 독신이든 그것은 모든 성행위를 삼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성적으로 순결하고 싶다면 섹스를 그만두는 것이 이치에 맞죠?

우리가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추억을 잠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950년대에는 "Leave it to Beaver"와 "I Love Lucy"와 같은 TV 쇼에서 부모가 별도의 침대를 사용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 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는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꽃의 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자유연애'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과 결혼에 대한 전통적이고 종종 제한적인 견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적인 자유와 실험에 관한 것이었고, 많은 캐주얼 섹스 파트너들과 함께, 그리고 단 한 파트너에 대한 헌신이 거의 또는 전혀 없었습니다.

- 80년대와 90년대에는 보수적인 정부로 인해 섹스에 대한 보수적 견해가 잠깐 지속되었지만, 혼전 성관계가 증가했고 사회적으로 더 용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가장 큰 요인은 에이즈 전염병이었습니다.
-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서 인터넷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곧 온라인 포르노가 뒤따랐습니다
- 오늘날 섹스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트렌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포르노 트렌드는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것을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주요 온라인 포르노 사이트에 따르면 그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알아차리고 있으며 그 새로운 트렌드는 자체 검색 엔진을 통해 보다 전통적이고 소박한 콘텐츠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분명히 해두자면, 이 마지막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성과 여성이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더 전통적인 것을 찾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하며, 이러한 추세도 바뀔 것이라는 또 다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처럼, 몸이나 마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취할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해두자면, 여기서 바울은 모든 독신자들이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8절에서 그는 교회에게 결혼이 선물이고 독신도 그러하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이것을 확증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문화적 규범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책이 쓰인 당시에는 결혼이 오로지 자녀를 낳기 위한 것이지 결코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쾌락은 정부와 매춘부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전 영어 교수인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네 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음탕한 남자가 거리를 배회하면서 '여자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가장 불행한 관용구를 사용한다. 엄밀히 말해, 여자는 그가 그저 원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한 여자가 도구로서 줄 수 있는 쾌락을 원한다."

루이스의 말을 번역하자면, "정욕은 육체를 쫓는다. 사랑은 그 사람을 쫓는 것이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라인 포르노가 우리 세대를 파괴하고 있는 주된 이유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욕망에 빠져 있고, 그들의 육체를 위해 인간을 쫓아다닌다, 그 사람에 대한 애착이 빠진 채로.

여기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결혼 생활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주다"라는 단어는 "회복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배우자에게로 회복하십시오. 어떻게요? "부부의 권리"를 통해서요.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각 배우자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애정, 사랑, 소속감을 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성관계는 오직 출산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부부들에게 그들의 성관계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애정을 회복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결혼 생활에서 하나가 될 때 그들의 의무입니다. 섹스는 그들의 영혼을 통합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 복원해야 합니까?"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제 대답은 답을 얻으려면 팟캐스트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힌트를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 빈번하면 즐겁습니다.

성경은 4절에 와서는 더 나아갑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전반부만을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 "예, 아멘!" "옳은 것 같지요", 그러나 두 번째 절반은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을 처음 들었다면 충격적이었을 텐데, 로마 제국과 그 너머의 여성들은 결혼 생활에서 소유권을 가질 때 동등한 파트너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성, 자기표현, 자기 소유권을 찬양하는 문화에서(레이 목사는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상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성경적 생각은 미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6:19-20에서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고전 6:19-20]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를 따르고 결혼한 우리들에게는 이중적 소유권에 대한 진정한 감각이 있습니다. 예수는 당신을 소유하셨고, 당신의 배우자도 그러합니다. 당신은 그 두 분을 위해 당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이곳 윌링던 교회에서 건물 관리자로 일하는 돈 맥러드(Don Macleod)는 최근에 MG automobile 를 복원했습니다. [전후 - 사진] 왜 이것을 공유할까요? 오래된 차를 보고 고장 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왜 캐비닛으로 바꾸지 않을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물건을 버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때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갱신하고, 구속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 생활이나 성을 버리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고 원래 의도된 방식으로 사용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갑니다.

2. 헌신에 신실하기 (6-11)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독신, 미혼의 사람들로 넘어가며, 과부들도 포함시킵니다. 바울은 독신과 과부가 된 모든 사람들을 목회적으로 격려하기 위해 아주 조금씩 움직입니다.

고린도 시대에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되어서, 아무도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모든 로마인의 시민적 의무였으며, 이는 안정된 사회에 필수적이었습니다. 특정 연령까지 독신으로 지내면 벌칙을 받거나 재산 상속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과부와 홀아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대 문화에서 과부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고아와 외국인과 같이 자주 연관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그들 모두에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함정이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우리에게 결혼의 유익에 대해 살짝 단초를 주었고, 이 장의 끝에서 그는 우리에게 독신의 유익에 대해 살짝 엿볼 수 있게 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 생활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독신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도덕한 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말하지 않은 것:

- 금욕생활이 독신이나 기혼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섹스에 미친 세상에서, 둘 모두의 목표는 성적 순결이다.
- 결혼은 죄에 대한 치료제나 연약함에 대한 양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여 트로피가 아니라 7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 결혼은 정욕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 결혼이 당신을 더 영적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양쪽 모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은 당신의 결혼 생활이나 독신 생활에서 무엇을 하도록 당신을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 성적 순결?
- 회복?
- 용서?
- 애정?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면, 결혼 생활에 충실히 헌신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독신이라는 은사를 받았다면, 당신의 독신 생활에 충실하게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독신이지만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그 사이의 시간에 전념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결혼과 데이트에 대해 젊은 남자들과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여성들이 데이트에 관심이 없는 것 같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라고 대답해 봅니다. 그리고 나면 보통 긴 침묵이 있습니다.

또는 같은 동전의 다른 면에, 당신은 나에게 그들의 여자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잃게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젊은 남성들이 있습니다.

- 나는 친구들과 많이 어울릴 수 없다.
- 하지만 스포츠도 보고 비디오 게임도 하고 싶어요.
- 정말 매번 번기를 올려야 하나요? (살고 싶다면).

나는 결국 그들의 불평을 멈추고 간단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뭘 얻을 수 있는지 말해 보세요!"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하든, 독신으로 지내기로 결심하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신실하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곳 윌링던 교회의 목사님들은 한동안 목회를 해오셨고, 목회자를 포함한 기혼자와 미혼자들에게 변함없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신랑에게 충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고, 그러고는 드물게 잠깐 동안 온전히 행복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의 간음은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엡 5:25-32]

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당신의 교회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를 찬양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예수의 모범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남자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은, 당신의 결혼 생활은 더 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신부를 위해 죽으신 신랑이심을 가리키고 있으며, 우리의 결혼은 그 현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으로;

3. 증거함에 신실하기 (12-16)

8절에서 바울은 본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질문에 답하며, 같은 패턴이 10절에서도 계속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바울이 10절과 12절에서 한두 가지 진술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 10절 내가 아니요 주시라
- 12절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10절에서 바울이 이혼에 대해 한 말과 관련하여, 그는 예수가 지상 사역 중에 가르치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마 5:31-32, 19). 예수는 고린도전서 7:10-11에서 바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었지만, 예수는 바울이 7:12-16에서 제기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대한 이전 설교 & 윌링던 교회의 입장 문서).

바울은 10절에서 11절이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12절부터 16절이 단지 바울의 개인적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바울의 모든 가르침은 영감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가 이 특별한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분의 지상 사역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유대인과 결혼하는 유대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지금 새롭고 독특한 상황, 즉 이방인이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10절로 돌아가서, 이혼을 원하는 두 명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것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주 예수께서 이미 그것에 대해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주제는 12절에서 시작되는데, 거기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일정 기간 동안 배우자 중 한 명은 기독교로 개종하지만 다른 한 명은 개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당신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당신과 함께 머물기로 동의한다면, 그대로 있으십시오, 이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15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예수에 대한 당신의 신실함 때문에 너를 떠나기로 선택한다면, 그들을 떠나게 허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절들의 중간과 이 부분의 끝부분에 희망이 있습니다.

[고전 7:14-15]

14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바울이 "구원받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거룩하게 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 그는 그리스도인 배우자에게 남아서 가족에게 신실한 증인이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는 방편입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당신의 가족 중에 있는 불신자들은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어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기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거나 청소년 그룹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친밀함에서 헌신함, 증거함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예수께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혼과 독신은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것입니다.

7장 내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올바른 곳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기를 원했으며, 그들의 삶이 예수께 온전히 헌신된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로라와 결혼하기 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었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들을 피한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로라는 예수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녀도 예수님이 그녀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 그것이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전체에 걸쳐, 예수가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고, 치유하고, 함께 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병, 매춘부, 세리-세금 징수원 등). 그러나 정결하신 예수는 단 한 번도 부정하게 되지 않으셨다. 사실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만지신 부정한 것은 모두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분이 만지는 모든 사람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생활, 결혼, 이혼, 독신 등 어떤 상황에서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도망치거나 숨는 것, 눈을 감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나의 죽음이 우리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팟캐스트에서 다룰 질문을 ask@willingdon.org 로 보내주세요.

[살후3: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